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출발

21일·22일 열려... 기자간담회서 오창환 조직위원장·사이먼 리처드슨 시장 등 개최 의미 소개

전주시가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전문
가들과 지역고유의 가치를 살려 시민
들이 행복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시는 2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박
순중 전주부시장과 오창환 행복의 경
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장, 사이먼
리처드슨(Simon Richardson) 호주 바이
런 사이어 시장을 비롯한 3인의 해외
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행복
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복의 경제학'
이 지닌 의미와 올해 국제회의의 전주
개최 배경 등을 설명했다.

21일과 22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
당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사이
먼 리처드슨 시장의 '원리와 적용 :
희망의 비전-호주 바이런 사이어'를
주제를 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이틀
간 덴마크의 야나 린백 로컬 퓨처스
(Local Futures) 프로그램 디렉터와 미
국의 그웬돌린 홀스미스 버몬트주 문
트필리아시 공공개발 기획관, 일본
의 사카타 유스케 킨기대학 산업이공
학부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
원 교수와 윤나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김영배 성북구
청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자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 강연에
나선다.

특히, 올해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에서는 전주시가 추구하는 사람·생
태·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미래 △로컬
푸드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등 3개
의 세션으로 구성된 워크숍도 진행될



전주시는 2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박순중 전주부시장과 오창환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장, 사이먼 리처드슨 호주 바이런 사이어 시장을 비롯한 3인의 해외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행복의 경제학'이 지닌 의미와 올해 국제회의의 전주 개최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
이 자리에서 오창환 조직위원장은
"전주시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연례로 개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로컬경제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분명한 신호이며, 또한 국내외에 로
컬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가치를 드
는 것이다. 또한, 전주시민과 행정이
전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난
20여 년 간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이번 국제
회의에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추
구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함께 우
리의 행복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회의의 기초강연을 맡게
된 사이먼 리처드슨 시장은 "완벽한
지역' 전주시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와 바이런 사
이언는 축제와 행사의 중심지이자 관
광도시이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한다
는 점에서 공통점이 매우 많다"라며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지역의 고유
한 문화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회복력을
높여준 전주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새 내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주목하며, 이
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
며 "앞으로도 전주는 대한민국 '행복
의 경제학'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보
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
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하여 각 분
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열린 토론
을 펼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추석맞이 청소종합대책 추진

30일~10월 9일까지... 20일 동별 취약지 일제대청소 실시

전주시가 열흘간의 추석연휴를 맞
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전주를 찾
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를 알리고 쓰레기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결주간 운영 등 추석대비 청소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20일 공무원과 자
생단체회원, 일반시민 등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동별 청소 취약지
를 정비하는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대청소는 추석맞이 고향
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와 생활쓰레기 감량 등 시민들의 성숙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많

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과 전주역 등 다중이용
시설과 한옥마을·덕진공원 등 주
요 관광지, 각 동별 이면도로 등에 방
치된 생활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
활폐기물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환경관
리원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근무
시간을 조정, 청소체계를 유지기로
했다. 또, 청소상황실과 기동처리반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추석 연휴
기간 포장 박스의 급증으로 수거 지연
이 예상되는 재활용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요령과 재활용 불가품목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배출 등을 안
내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 방문 격려

유공경찰관 표창 수여도

완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추석 명절
을 앞두고 격무부서 경찰관들을 격려
하기 위해 평화파출소를 방문했다.
이 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

위 몰래 사용한 범인을 검거한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양춘원 평화파출소장은 "추석 명절
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 받
는 특별방범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
했다. /이성민 기자

덕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려

덕진경찰서는 20일 오전 2층 소회의
실에서 경찰서장, 교수, 변호사 등 시
민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
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
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며, 경미형
사범죄는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은 훈방 조치로 감경된다.
이번 위원회에는 절도 피의자 11명,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자 2명 총 13명
의 처분 감경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
되었으며 12명 감경 처분, 1명은 원처
분 유지가 결정됐다.
한편, 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년
층과 취업준비생들 대상으로 심사회
형사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전주시 '덕진보건소 신축' 가시화되고 있다

시, 설계공모 당선작 주민설명회 개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목적

전주시 덕진구 주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덕진보건소
신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20일 덕진보건소 신축부지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0번지, 1.097
평)에 인접한 우아동 상가변영회 회
의실에서 덕진보건소 신축에 관심 있
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
진보건소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소 신축 설계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장애의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을 도입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시는 오는 2019년까지 총 149억원을
투자해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6,540㎡ (1,978평) 규모로 덕진보건소
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등
을 거쳐 오는 2018년 3월 설계가 완
료되면 5월부터 공사에 착공, 오는
2019년 하반기에 덕진보건소를 개소
할 예정이다.
시는 덕진보건소 신축 공간을 변화
한 공공보건정책 트렌드에 맞춰 예방
접종과 진료업무 등의 공간은 축소하
는 대신, 치매 관리와 자살예방, 비만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사
업 분야에 중점 배치해 공공의료 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열 및 태양광에너지를 사용
하고 빗물 재사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 건물로 신축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보건소 업무관련 주차
예측수요 52대에 80대가 추가된 132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조성된
주차장은 주민을 위해 무료로 상시
개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덕진구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덕진보건소를 신축기로
결정했다. /김민근 기자

완산 삼천지구대, 현금다액업소 범죄예방 활동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는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은
행, 금은방, 편의점 등 현금다액업소
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과 범죄예방 홍
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출입문
잠금장치 안전성 여부, CCTV 정상작
동 및 사각지대 여부, 경비업체 기입
여부 등 시설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취약시설에 대해 편의점 업주
에게 방범시설을 보강토록 권고하는
등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했다.
특히, 주·야간 112순찰차를 통해

가장 및 폐장시간이 취약시간에 맞춰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협력
단체 및 지원경력들과 합동으로 도보
순찰을 통해, 주변 취약성을 진단해
가로등 설치 및 CCTV 보강 등 유관
기관에 협조를 병행했다.
이호봉 삼천지구대장은 "추석절 선
제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 범죄 노출
위험이 높은 현금다액업소에 대한 범
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
다"며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미나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상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용,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연합동조합